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청정 수질 유지 휴가철 응급의료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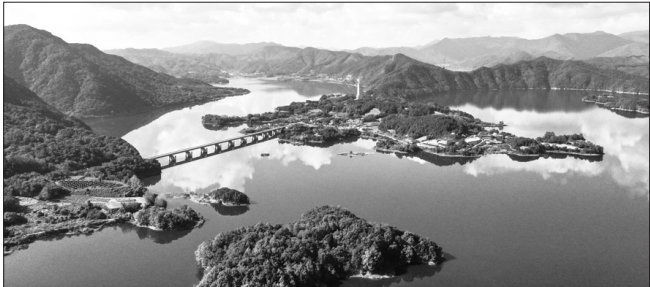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 위해 체계적 운영·안정적 관리 앞장

진안군은 용담호 광역상수원과 섬진강 수계의 청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상 위급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진안공공하수처리장과 용담공공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부귀·마령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6개소, 중계펌프장 280개소를 운영하며 하수처리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안군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인(T-P) 등 주요 항목에서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안공공하수처리장은 BOD가 법적 기준(10.0mg/L 이하)의 10분의 1 수준인 1.2mg/L를 기록했으며, 용담공공하수처리장 역시 엄격한 I 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모든 주요 항목에서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6



용담호 전경

개소 또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지렁이 녹성토로 100% 재활용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철저한 운영관리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진안군은 환경부가 실시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2020년, 2022년, 2023년 세 차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군은 증가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호는 전북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광역 상수원"이라며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최고 수준의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용담호 광역 상수원의 청정 수질 보전과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현장 점검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23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접수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장의 접수 상황과 민원 응대 체계를 직접 살피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 군수는 진안읍 기본소득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군은 공정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읍·면별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을·면별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청자의 실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행복우편배달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장수군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장수우체국과 협업해 추진 중인 '행복우편배달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장수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5월부터 행복우편배달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행복우편배달서비스는 집배원이 격

주(월 2회)마다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피는 사업이다.

방문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알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고독사와 복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는 해당 읍·면과 정보를 공유해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휴가철 응급의료체계 강화

무주군, 보건의료원·소방서 협력체계 구축

무주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무주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방문객이 집중되는 2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8월 1일부터 흉부외과 전문의 1명을 추가 배치해 응급실 전담 의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간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이송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응급 및 비응급 환자를 분류해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감염병 의심 환자는 별도 격리 진료를 실시한다.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후두경

과 기도삽관장치, 산소호흡기 등을 갖춘 특수구급차도 24시간 대기한다.

무주군은 무주소방서와 119구급대 및 보건의료원 응급실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대응부터 이송, 응급처치, 상급병원 인계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이송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정기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외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통합진료, 치과, 산부인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CT, 초음파기, 골밀도측정기 등 주요 의료장비를 갖춰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벼 병해충 예찰 강화·적기 방제 당부

장수군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잦은 강우로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군은 최근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깨씨무늬병과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8월까지 출수가 전·후 4회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예찰 대상은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으로 벼의 생육과 수량, 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농업인은 논을 수시로 살펴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 초기에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장수군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벼의 생육 저하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철저한 예찰과 재배 관리가 필요한 만큼 현장 기술 지원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체육교사 피클볼 실기 연수 운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22일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전담)교사와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2026 체육교사 실기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 참여 중심의 체육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생활체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네트형 뉴스포츠인 피클볼을 학교 체육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수는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와 선도교원인 강대교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피클볼의 개요와 경기 규칙, 기본



기능(서브·리턴) 실습, 2대2 경기 운영, 수업 적용 사례 및 안전지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가 교사들은 라켓을 들고 실습에 참여하며 피클볼의 기본 기술과 경기 운영 방법을 익혔으며, 학교급별 체육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과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기후변화대응다목적 햇빛차단망현장평가회열려

장수군은 지난 22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현장 실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농업 여건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최근 연이은 폭염과 이상기온이 찾아지면서 사과 일소(햇빛 데임) 피해가 증가하고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다목적 햇빛차단망을 보급했다.

보급된 햇빛차단망은 여름철 강한 햇빛을 차단해 일소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불철 저운 피해와 수확기 조류 피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햇빛차단망 설치 결과 사과 일소 피해율이 차광 전 약 25%에서 차광 후 약 5%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해 농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관계자, 사과 재배농가 등 30명이 참석해 햇빛차단망 설치에 따른 과원 환경 변화와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시범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적용 효과를 공유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한전 경기본부 직원들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들이 23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응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훈하 경기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장형석 전략경영부장, 정원석 무주지사장 등이 참석해 직원 112명의 뜻을 담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정확준 경기본부장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군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부금이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